공공, 금융, 제조, 통신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최적의 IT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해온 IT서비스기업.

전자정부, 은행차세대 시스템,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등 대형 프로젝트를 했었음

최근 에이텍이라는 회사에 ATM사업 팔아넘김.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신사업에 집중하기 위함이라 발표.

<미래 신성장 동력>

* 특히 IT를 통한 에너지 플랫폼 기반의 종합 에너지 사업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미국령 괌에 40MW규모의 ESS(에너지 저장장치 시스템)구축사업을 수주했다. 국내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ESS시스템 수출 사례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네비건트 리서치는 지난해 LG CNS가 ESS시스템통합 분야 경쟁력에서 아시아1위, 글로벌7위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야마구치현 신미네지역의 태양광발전소 구축사업을 따내는 등 LG CNS의 태양광 발전산업도 꾸준히 성장중이다. LG는 한국기업으로 일본 태양광발전산업 최대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 지능형 공장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도 LG CNS의 미래 먹거리로 꼽힌다. LG CNS는 기존 빅테이터 사업조직을 ‘AI 빅데이터 사업담당’으로 개편했다. 현재 200명 수준인 인원은 국내외 딥러닝 전문가등으르 채용해 내년까지 4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AI 빅데이터 플랫폼은 지능형 공장 솔루션인 ‘스마트팩토리’의 핵심이다.
* LG CNS는 2014년 IoT분야 연구와 사업화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IoT부문을 신설하고, 스마트 디바이스 전문 인력을 비롯, 다양한 토인 프로토콜/데이터표준 구현 및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고급분석역량, IoT보안 등 IoT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영역의 솔루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 클라우드 분야에서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상암 IT센터,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가산 데이터센터, 인천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 분야 최고 권위상인 ‘브릴 어워즈’를 국내 최초 수상하기도 했다.
* 최근 GS 수퍼마켓과 손잡고 IoT ESL공급 하고 있다. 전자종이로 제작되는 ESL은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해 상품명과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준다. 3색 ESL은 LG CNS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과 LG 이노텍의 하드웨어 개발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중앙 서버에서 상품 정보를 변경하면 센서를 통해 해당 정보가 매장 ESL에 자동 반영된다. 직원이 수작업으로 가격표를 일일이 교체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면서 업무 효율이 커지고, 표기 오류도 없어지는 이점이 있다.